

2022-2학기 정암학당 연구강좌 수업 계획서

강좌명	서기 1-2세기의 중기 플라톤주의 연구: 알비노스의 『플라톤 철학 서설(Prologos)』과 알키노오스의 『플라톤 학설 강의(Didaskalikos)』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19:00-22:00 (*기타사항 참조)
담당교수	김 유 석	연락처	iouskim@hotmail.com
강의개요	<p>서기 1세기와 2세기는 아카데메이아 회의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플라톤 철학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함께 플라톤주의를 하나의 완결된 학설 체계로 세우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철학사에서는 이 시기의 플라톤주의를 ‘중기 플라톤주의(Middle Platonism)’라고 부르는데, 이때 ‘중기’라는 말은 아카데메이아 회의주의와 신 플라톤주의를 잇는 ‘매개자(medium)’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p> <p>이 시기를 대표한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플루타르코스(50-125)는 플라톤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플라톤의 관점으로 해결하려 했고, 앗티코스(2세기 후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종합을 시도했으며, 누메니오스(2세기 후반)는 신 픽타고라스주의를 통해 플라톤 철학의 빈 부분을 채우려 하였다. 그런가 하면 알비노스(2세기 중반)와 알키노오스(2세기 중반)은 플라톤의 작품들을 분류하고 그 사상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교과서를 작성하였다. 이들의 작업 속에서 플라톤 철학은 하나의 일관된 학설(dogma)로 체계화되었으며 이른바 ‘플라톤주의’가 형성되게 된다.</p> <p>본 강좌에서는 알비노스의 『플라톤 철학 서설(Prologos)』와 알키노오스가 쓴 『플라톤 학설 강의(Didaskalikos)』를 다루고자 한다. 두 작품 모두 학생들을 플라톤의 대화편들과 사상으로 안내해주는 일종의 교과서로서, 향후 쓰이게 될 거의 모든 플라톤주의 입문서의 모델이 된다. 본 강좌에서는 이 두 작품을 읽으면서 고대 후기에 들어서 플라톤의 철학이 어떻게 해석되고 체계화됨으로써 하나의 학설로 전화해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과 비교하여 고대의 플라톤주의 학교에서 플라톤의 대화편들이 학생들에게 읽히고 학습되는 과정 역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p>		
주차 별 강좌 일정			
1주차 (9월 6일)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소개, 중기 플라톤주의 개관: 역사적- 철학적 맥락, 주요 철학자들 ■ 알비노스와 알키노오스: 인물과 작품 소개 	강사의 강의로 진행
2주차 (9월13일)	알비노스, 『플라톤 철학 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의 정의, 구성 요소 ■ 작품 유형 및 분류 방식 	강독 + 주석과 토론 『서설』 I-III장
3주차 (9월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수준에 따른 대화편의 독서 순서 ■ 교육 목표에 따른 대화편의 독서 순서 	강독 + 주석과 토론 『서설』 IV-VI장
4주차 (9월27일)	알키노오스, 『플라톤 학설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자란 누구인가? ■ 관조적인 삶과 실천적인 삶 	강독 + 주석과 토론 『강의』 I-II장
5주차 (10월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학의 부분들 ■ 진리의 기준과 인식론 	강독 + 주석과 토론 『강의』 III-IV장
6주차 (10월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증술 ■ 추론과 논리학 	강독 + 주석과 토론 『강의』 V-VI장
7주차 (10월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 자연학: 질료에 관하여 	강독 + 주석과 토론 『강의』 VII-VIII장

8주차 (10월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데아에 관하여 ■ 신에 관하여 	강독 + 주석과 토론 『강의』 IX-X장
9주차 (11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질의 비물질성에 관하여 ■ 우주의 생성에 관하여 	강독 + 주석과 토론 『강의』 XI-XII장
10주차 (11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소들 ■ 우주혼, 항성들과 행성들 	강독 + 주석과 토론 『강의』 XIII-XIV장
11주차 (11월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들어진 신들, 다른 생명체들 ■ 인간의 몸, 생리학과 질병에 관한 물음들 	강독 + 주석과 토론 『강의』 XV-XXII장
12주차 (11월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과 몸, 이른바 심신 관계에 관하여 ■ 혼의 불사에 관하여 	강독 + 주석과 토론 『강의』 XXIII-XXV장
13주차 (11월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명, 최고선과 행복 ■ 인간의 목표: 신을 닮는 것 	강독 + 주석과 토론 『강의』 XXVI-XXVIII장
14주차 (12월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과 진보 ■ 악의 문제: 윤리학적 지지주의 	강독 + 주석과 토론 『강의』 XXIX-XXXI장
15주차 (12월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들 ■ 친애와 사랑 	강독 + 주석과 토론 『강의』 XXXII-XXXIII장
16주차 (12월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철학 ■ 철학자와 소피스트, 결론 	강독 + 주석과 토론 『강의』 XXXIV-XXXVI장
교재	<p>(1) Reis, Burkhard (Ed. & Übers.), 1999, <i>Der Platoniker Albinos und sein sogenannter Prologos</i>, Wiesbaden, Dr. Ludwig Reichert Verlag.</p> <p>(2) Whittaker, John & Pierre Louis (éd. & trad.), 1990, <i>Alcinoos: Enseignement des doctrines de Platon</i>, Paris, Les Belles Lettr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자세한 참고문헌 목록은 수업 첫 시간에 소개할 예정이다. 	
담당교수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실대학교 철학과(학사)와 동 대학원(석사)을 마치고, 파리1대학 철학과에서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정암학당 연구원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주의 전통이며,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 가운데 『티마이오스』를 번역한 것을 계기로 고대 후기의 플라톤 수용사와 주석 전통에도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잠정적으로 정해진 수업 일시는 매주 화요일 19:00-22:00(3시간)이며, 첫 수업은 9월 6일이다. 단 수강생들 다수가 수업 일시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 수업 첫날 변경 가능한 일시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수업 진행은 온라인(Zoom 또는 네이버 밴드)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접속 관련 공지 사항은 개강 1주일 전에 정암학당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이다. ■ 수업은 첫 주의 중기 플라톤주의 입문(강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비노스와 알키노오스의 텍스트를 학생들 및 연구자들과 함께 강독하며, 주석과 해설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 수업 중에는 알비노스와 알키노오스의 텍스트에 대한 강사의 한국어 번역(초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강생들 가운데 서양 고대철학이나 고전학 전공자들, 혹은 그리스어를 배우는 학생이 있어서, 강독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그리스어 원문을 제공할 것이다(강독 참여 희망자는 첫 시간 수업 후 강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다만 본 강좌는 관련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고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으며, 특히 플라톤과 플라톤주의, 서기 2세기의 그리스-로마 지성사 및 문화사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